

과거의 經驗과 技術傳受를 토대로 外國技術 依存에서 技術自立 구축해야



朴 正 基
(韓國原子力産業會議 會長)

尊敬하는 李台燮 科學技術處長官님, 내의
귀빈 여러분

오늘 第2回 韓國原子力産業會議와 原子力
學會 合同年次會議를 맞아 지난 한해 原子力界
의 實績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進路를 摸索하
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昨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行事は 韓國에 電氣가 들어온지 1百年이 되
는 해를 기념하는 뜻으로 이곳 韓國電力에서
開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百年에 걸친 우리나라의 電力史는 舊韓
末 以來 우리 民族이 겪어 온 苦難과 榮光의
歷史,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1948年 當時 90%의 電力設備를 갖고 있던
北韓이 예고없이 단전을 감행하는 바람에 우
리는 20世紀 사회에 유례없는 電氣없는 國
家로 전락하였고, 불과 2年 후인 1950年에
는 北韓의 武力侵略으로 그나마 10萬kW 남
짓했던 우리의 電力設備를 모두 잃고 말았던
쓰라린 經驗은 지금도 누구나가 생생히 記憶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北韓
의 10배에 가까운 國力을 이룩하였고 그 10
배의 公業력을 뒷받침하고도 남은 電力設備

“ 이번 會議가 이러한 우리의 里程碑를 바르게 樹立하고 技術水準을 올바르게 評價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를 確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운데 원자력발전은 불과 15년 사이에 7기를 완성하여 運轉중이고 95만 킬로와트급 2기가 建設중이며 新規 2기가 계약을 마치는 등 급속한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原子力發電所의 利用率도 75%에 가까운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月城原子力發電所의 경우 '85년도에 98%가 넘는 탁월한 기록으로 세계 2백基의 原子力發電所 중 1위를 차지하는 큰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發電量에 있어서도 지난해엔 44%를 原子力이 공급함으로써 이제 原子力은 電力供給의 主役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局面에서 이제 우리나라 原子力界의 當面課題는 하루라도 빨리 原子力技術의 自立을 기하여 에너지의 自給自足を 이룩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原子力産業도 대부분 과거 外國技術에의 依存的 形態에서 그 동안의 經驗과 技術傳受를 토대로 하여 本格的으로 自立형태를 구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契約을 마친 原子力 11, 12號機의 建設을 통해 技術自立을 達成하려는 매

우 意慾的인 目標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計劃대로 이 目標를 達成한다면 우리의 손으로 原子力發電所를 짓는일 뿐만 아니라 核燃料까지 供給함으로써 적어도 國家에너지의 40%를 完全한 國產에너지로 保有할 수 있는 참으로 가슴 벅찬 歷史的 課業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技術自立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 우리의 念願과 意志가 있는한 그 또한 안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韓電人은 그동안 設定해 놓은 에너지 政策의 建設을 위하여 信念과 確信을 가지고 前進을 始作하였습니다.

이러한 時點에 이번 會議의 基調테마가「原子力技術의 向上과 自立」으로 採擇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內容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會議가 이러한 우리의 里程碑를 바르게 樹立하고 技術水準을 올바르게 評價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參加해 주신 世界原子力界 인사 여러분에게 感謝드리며 많은 協調가 있으시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年 4月 29日